

□ 새정부 출범 100일, 여성정책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결코 특혜를 원치 않는다”

복지차원 접근 벗어나야, 공정한 경쟁 위한 규칙 필요할 뿐

새정부 출범이 어느새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선 당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에 관한 공약들도 함께 100일을 지난 것이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여성 정책을 펴는 것 같아 호평을 받기도 했던 새정부. 앞으로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평소 부부이름이 함께 적힌 문패를 걸만큼 진보한 여성관을 가졌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취임식을 거쳐 정부를 꾸린지 90여일 지났다. 김대통령의 여성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듯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 부분은 여성정책이었다.

새정부는 여성특별위원회(여성특위)를 설치, 여성정책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공식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여성특위가 공식적으로 의사를 개입할 루트가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전 정부장관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핫라인 개설 등 제도적인 대화 통로를 마련해야 하고



▲ 여성들은 남녀공동사회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매년 한국여성연합은 한국 여성대회를 연다

부처별 여성관련 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성특위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 회담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좀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신정부가 여성합당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지방자치제(지자체) 선거의 후보자 공천과정을 보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여성에게 각급 선거 후보 중 30% 이상을 할당하기로 했는데도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라며 한국여성연합(여연)의 한 관계자는 유망부실해진 여성의 정치참여 공약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 지위 향상에 관해 새정부

에 거는 또다른 기대는 바로 여성의 직업에 관한 부분이다.

경제위기의 늪에 빠진 정부는 무엇보다 급선무인 경제회생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택했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정리해고 대상 ‘1순위’인 여성들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투쟁하고 있다.

“가장을 자를 수는 없지 않느냐”, ‘여성들은 들어갈 집이 있다’는 등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현재 여성 우선해고는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 현재 한명의 남성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식솔은 3.7명 가량인데 반해 여성 가장은 한 가정당 약 2.7명의 식솔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회

생이 따르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여성우선해고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여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장의 16.1%가 여성이고, 예전보다 높아진 이혼률로 여성가장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여성 우선해고가 당연시된다면 여성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를 반박했다. 여성의 우선해고 주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나 실효를 가졌던 구시대적 발상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인력시장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우수한 자질과 고비용 교육에도 불구하고 불려오는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없던 보물을 무상

으로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말이다. 이에 대해 전 정부장관실의 한 관계자는 여성들이 인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개인부담을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경경쟁의 규칙 입안자들조차 불공정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성차별 대부분이 해소되고 여성의 정치참여 역시 각종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등으로 개선된 상태여서 여성정책의 초점이 국가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구시대적 여성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 기존의 여성정책은 불이익을 당한 여성에 대한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할 여성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갖는 것이지 결코 특별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처럼 새정부의 여성정책 또한 21세기를 향한 우수한 자질과 고비용 교육에도 불구하고 불려오는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없던 보물을 무상

강단시론

개혁 인플레이션

근래 신문지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개혁’이다. 정치개혁, 행정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 의식개혁, 방송개혁 등등,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개혁을 정치인이나 정부, 공공단체뿐 아니라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마치 주문처럼 외치고 있다.

물론 개혁은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 추구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전진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개혁 슬로건을 남발하면 경제인플레이션 못지 않게 해로운 개혁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개혁을 외치며 장미빛 미래를 꿈꾸기 전에, 선부르고 무절제한 개혁노력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성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명백한 위기상황이 아닌 모든 경우에 개혁 운운한다면, 어떤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덜

심각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고 관심과 노력이 분산되어 전체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물론, 사회의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측면만 떼어 개혁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보다 시급한 문제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혁을 외쳐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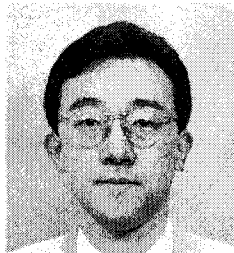
둘째, 개혁인플레이션은 사회쟁점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 마비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개혁은 수십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주제로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또 난리야’라는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개혁 노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꺼져서 경주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진지함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혁에 편집증세를 보일 때 자주 나타나는 결과는, 개혁을 위한 처방책만 성급히 제시하려다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만약 원인 파악이 잘못 이루어진다면 엉뚱한 부분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리어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 개혁 편집증은 또한 어떤 처방책이 실효를 거둔만한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무시하고 곧바로 실천을 시도하는 용감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대학이 위기에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상당기간 해야하고 특정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선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에 입각하여 대개혁의 처방책들을 나열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 결과는 만족스러울 수 없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넷째, 개혁슬로건의 남발이 정부, 학교, 정당 등 공공단체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 기대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반면 현실을 넘어선 기대수준은 결국 공공단체의 불신감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개혁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권위주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은 김영삼정부에 의해서 잘 예증된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마법적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명분하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초래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개혁슬로건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토의를 이끌어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해나가는 모습이 아쉬운 때이다. 개혁이라는 좋은 단어가 오용, 남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때이다.



임성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이 정부, 학교, 정당 등 공공단체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 기대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반면 현실을 넘어선 기대수준은 결국 공공단체의 불신감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개혁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권위주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은 김영삼정부에 의해서 잘 예증된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마법적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명분하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초래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개혁슬로건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토의를 이끌어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해나가는 모습이 아쉬운 때이다. 개혁이라는 좋은 단어가 오용, 남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때이다.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국가의 정책에 일정수준의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출범식에서 보여준 ‘반미투쟁선포’나 ‘지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겠다’는 등을 기초를 내비쳐 여전히 다수 일반학생들과의 괴리감을 좁히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

□ 6기 한총련 출범식과 이후 방향성 진단

‘신속함’ ‘공유 부족’ 엇갈린 출범식

물리적 충돌 없어 고무적, 변함없는 기조 아쉬워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대에서 예정보다 하루 빨리 진행되었다.

출범식은 당초 지난 30-31일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29일 약 오후 2시부터 학생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총련은 ‘반미투쟁선포’, ‘출범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2시간여동안식을 진행했다.

순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은 출범식에서 “IMF를 앞세운 미국의 경

제침탈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민생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겠다”고 밝혀 기존의 한총련 노선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출범식에는 서총련, 남총련, 부경총련 등 전국 7개 지역 지구별 대학총련이 참가하였으나 경인총련 등은 경찰의 봉쇄 또는 자체판단에 의해 출범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출범식이 진행되는 동안 헬기 3대를 동원, 방송을 통해 해산을 종용하는

한편 42개 중대, 4,000여명의 병력을 교문 밖에 대기시켰으나 학교에서 강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강제해산을 위해 교내로 진입하지는 않아 양측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이 사전통보나 논의 없이 갑자기 학교로 물러옴으로써 총학생회의 학생 자치권을 무시했다”며 한총련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6기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각계 반응은 지난 5기 때와는 달리 빠르고 평화롭게 치



▲ 서울대 도서관 앞, 6기 한총련 출범식 현장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만이 아니다.

개혁자 정신으로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이사벨 여왕,
영국 경제를 일으킨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3·1운동의 상징으로 여극예측,
불굴의 의지를 지녔던 유관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을 위한 회사, 태평양은
이런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원대한 포부와
식견을 가진 여대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CULTURETTE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 응모기간: '98. 9. 1 ~ 10. 31
- 응모주제: 현대여성의 사회참여
- 응모방법
 - 분량: A4용지 20매 내외 분량(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 2장내외 논문요약내용 별첨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88년 8월 현재)
 - 자기소개서 1부(여권용사진 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호출번호 등 기재
 - 공동연구: 2인에 한함
- 시상: 최우수상 1명: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명: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상자 발표: 1998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 제출처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함)
- 기타사항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수상자 당사 입사시 우대
 - 수상자 전원에게 2차 3월 태평양 재능증상 견학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02-749-2388/02-709-5631)
- 심사기준: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합력(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서,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앞서는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